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보도자료	
	• 배포 : 2020. 09. 22(화)	
담당자	• 철도실 홍정표 책임연구원, 박현석 선임연구원, 선광웅 연구원 • ☎ 031-389-6392 / 031-389-6476 / 031-389-6536 • jwpark@kaia.re.kr / grayjackal@kaia.re.kr	
보도일시	• 9월 2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	

국가RSD "상하 개폐형 로프스크린도어(RSD)" 유럽시장 진출

- 불가리아 2개 역사 설치 및 정상 운영 -



Vasil Levski역 설치 및 정상 운영('20.8)



Opal Chenska역 설치 및 정상 운영('20.8)

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교통진흥원)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(주)에스케이디 하이테크가 개발한 “상하 개폐식 로프스크린도어(RSD)”가 불가리아 소피아 지하철 바실레브스키역(Vasil Levski)에서 지난 8월31일, 오팔첸스카역(Opal Chenska)에서는 9월3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.

* RSD(Rope Screen Door) : 위아래로 로프형의 줄이 움직이면서 승강장과 열차 사이를 막는 형태의 스크린도어로 좌우개폐식 스크린도어와 달리 출입문의 위치나 열차의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 가능

- (주)에스케이디 하이테크 컨소시엄((주)하나택시스템, (주)에스케이디하이테크, ATCO TRADE)과 불가리아 소피아메트로폴리탄이 1,100만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(12개 역사, '19.6.19)한지 1년 3개월만이다.
- 상하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여러 차종의 열차(도시철도, 고속철도, 간선철도 등)가 운영되는 승강장에 적용되도록 설계·제작되었음에도 그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.
- 로프스크린도어는 그동안 일본 도쿄 츠키미노역('14.01.~'14.09) 및 스웨덴 스톡홀름 아케쇼브역('14.12.~'15.02), 국내 논산역('17.02.~'18.04. 시범설치), 대구 문양역('13.03.설치, '14.01.까지 테스트 완료 후 현재까지 가동) 등에 7년 이상 운영을 해오면서 안전성 및 신뢰성 테스트를 병행해왔고 기술력 향상을 이루어왔다.
 - 이에 국토교통진흥원은 2018년 연구 종료 후에도 성과의 활용·확산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용화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보유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해왔다.
- 특히, 이번 불가리아 진출성공은 2019년 한불 정상회담('19.9.27)후 본 프로젝트가 주위의 관심을 받았던 만큼 그 성공여부에 귀추가 주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, 이를 계기로 유럽권 진출확대에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.
- (주)에스케이디하이테크는 현재 프랑스, 영국, 스웨덴, 대만 등 해외 여러 국가와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.
 - 불가리아 소피아메트로폴리탄은 여러 차종의 열차가 운영되는 역에 적용하여 2020년 말부터 2021년까지 추가 10개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.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5,247억 원('20년 기준)의 R&D 예산을 집행·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건설기술 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 사업,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등), 건설·교통신기술 인증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이 있다.